

버럭 03월호

Contents

자립생활기술훈련 1차 요리교실 '집 밥 정(正)선생'	2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너와 나의 징검다리'	4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2차 블링교실'	6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총회	8
자립생활주택 외식문화체험 미아 롯데백화점 '도쿄 짬뽕'	10
613 공감토론회	12
이달의 정보	14
이달의 시	16
강북센터 CMS자동이체 신청서 / CMS납부 목록	17
광고	18



자립생활기술훈련 1차 요리교실 ‘집 밥 정(正)선생’

김지연



08월 23일(금) 14:00-17:00 강북센터 교육실 1707호에서 자립생활기술교육 1차 요리교실 ‘집밥 正 선생’을 진행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라 그런지 요리교실을 준비하는 내내 떨림과 설렘이 공존하였다. 강북센터 스텝들은 참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재료를 손질하며 참여자들이 도착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서 참여자들을 기다렸다. 시간이 되자 참여자분들이 도착하기 시작하였고, 출석체크를 한 뒤 요리교실을 진행하였다.

이번 요리교실은 신규참여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강북센터에 처음 방문해주신 참여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하고 낯설어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금세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요리교실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하였다. 참여자들의 담소로 긴장감이 풀릴 즈음 본격적으로 요리교실을 시작하였다.



먼저, 참여자들에게 피자토스트와 떡꼬치 레시피를 설명하며 참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재료로 시범을 보여드렸다. 참여자들은 요리 시범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는듯하면서도 미리 완성해 놓은 요리를 보여드리니 빨리 만들고 싶으며 재료를 집어 들었다.

요리시범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앞에 놓인 재료를 자기가 먹고 싶은 크기로 잘게 또는 큼직하게 자르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이 사용한 칼은 진짜 칼이 아니라 안전용 칼이라 야채를 자르기에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다들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재료손질을 하였다. 또한 재료손질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 참여자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며 손질을 도와주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은 예전일인마냥 서로가 벌써 친한 친구가 되어있었다.



참여자들은 열심히 손질한 재료와 피자치즈를 식빵에 듬뿍 올린 후, 각자의 빵을 전자렌지에 2분 30초 동안 돌려주니 아주 근사한 피자토스트가 완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자기가 직접 만든 피자토스트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특히 신규참여자 김○○씨는 손주들에게 해주면 아주 좋아할 것 같이라며 집에 가서 꼭 해봐야겠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이 완성된 피자토스트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진행자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다.

피자토스트를 완성한 후, 참여자들은 각자 앞에 놓인 나무꼬치에 떡을 꽂으며 떡꼬치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요리교실 시작 전 떡을 미리 불려봤는데 생각보다 말랑해지지 않아서 나무꼬치에 떡을 꽂을 때 떡이 갈라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소탈하게 웃으며 어떻게 하면 더 잘 꽂힐까를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열심히 떡을 꽂았다. 이렇게 참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서로 도와가며 열심히 요리를 만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참여자들이 떡을 꽂으면 스텝들이 떡을 튀긴 후 참여자들이 직접 떡에 소스를 바르며 떡꼬치를 완성하였다.

모든 요리를 완성한 후 참여자들은 자신이 만든 요리를 시식하면서 맛평가도 하고 요리교실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누면서 만족도조사지를 작성하였다. 다들 선정메뉴와 요리교실진행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였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음 요리교실에서 만들고 싶은 요리를 얘기하면 즐겁게 요리교실을 마무리하였다.



처음 시행한 프로그램이라 걱정이 앞섰는데 참여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맛있게 드셔주셔서 뿌듯함을 느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를 선정하여 참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나와 나의 징검다리>

전난희



대방동여성플라자에서 3월 26일 ~ 28일까지 2박3일 동안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너와 나의 징검다리'를 진행하였다.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담당자인 나와 여러 스텝들은 기초과정 일정을 비롯한 보도 자료 작성과 참여자 모집, 수료증 준비 등 많은 준비를 하였으며, 다행히도 참여자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어 스텝들의 수고가 빛을 발하였다.

이번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은 강우진 교수님(송의여자대학교)께서 주 강사를 맡아주셨고,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배출한 김도형 동료상담가가 보조강사를 맡아주어 2박3일의 교육일정을 진행하였다.

26일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의 1교시는 자기소개와 닉네임을 보조강사이신 김도형 강사님께서 진행하셨고, 참여자들은 돌아가며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신청이유와 함께 자기소개를 하였다. 참여자들은 본인에게 어울리는 닉네임을 정하기를 어려워하였으며, 박00씨는 간식으로 나눠드린 과자 이름을 붙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2교시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였고,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의 주 강사이신 강우진 교수님 진행 하에 동료상담가란 무엇이며, 동료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상담가와 내담자가 동등한 위치해서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강우진 교수님은 동료상담이란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라고 말씀하시며 목적 없이 나누는 대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다로 끝나지만, 목적을 가지고 나누는 대화는 내담자의 상황과 상태를 이끌어주고 변화함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7일 1교시는 A4 용지를 이용하여 기초과정에 참가하며 느꼈던 새로운 점과 좋았던 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동료상담가로서의 꼭 지켜야 할 규칙과 상담에 필요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또, 장애를 배제하고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성향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소개하며 타인의 성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동료상담에서 꼭 필요한 경청하는 기술을 익히는 시간도 가졌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참여자들끼리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극과 그 역할극을 통해 상담자와 내담자가 되어본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과 자신이 생각하는 동료상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기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 시간은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의 교육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와 강의 수강 전에 생각했던 동료상담과 수강

후에 생각하는 동료상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참여자 남00씨는 자기가 비록 장애를 가지고는 있지만 심화과정까지 수료하여 동료상담가가 꼭 되어 많은 장애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동료상담가가 되고 싶다고 하였으며, 조00씨와 김00씨는 외부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몰라 항상 답답한 심정이었지만, 체계적인 강의내용과 다양한 상담방법들을 들을 수 있어 가슴이 펴 뚫린 느낌이었다고 하였다.

마지막 날인 28일은 주 강사님과 보조강사님을 비롯한 참여자들의 간단한 소감을 나누었으며,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의 수료식을 마지막으로 2018년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마무리하였다.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에 참여해주신 참여자분들과 동료상담가 양성교육 기초과정 준비를 도와주신 주영경 대리님을 비롯한 박지훈 활동보도인 쌤과 김지연 사회복지사 쌤에게 고마움 마음을 전하며 다음번 심화과정 준비와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한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2차 볼링교실’

주영경



2018년 3월 21일(수) 14:00 ~ 17:00 2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볼링교실’은 1차와 동일하게 수유역 강북볼링센터에서 진행하였고 스텝을 제외한 총 11명의 참여자가 모였다.

갑작스럽게 내린 3월의 눈에도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2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 참여하였으며 그룹을 나눠 3개의 레인에 배치하였다.

본인의 손과 발에 맞는 볼링공과 볼링화를 선택한 뒤, 개인전이 시작되었다. 볼링교실 진행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점수와 상관없이 서로 응원하며 즐거워하는 참여자 모습이 보였으며 20대 ~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볼링을 처음 접해본 전** 참여자는 초반에 별 반응이 없는 듯 했으나, 볼링핀이 쓰러지자 기뻐서 펄쩍 뛰었다.

볼링핀이 쓰러지는 개수보다 게임을 즐기고 서로 응원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에 사업을 진행하는 스텝으로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렇게 1시간 30분 정도 2게임을 진행하였으며, 게임을 마친 뒤, 뒷정리하



는 시간을 가졌다.

신었던 신발과 공을 반납한 뒤, 수유역 인근 중식당으로 이동했다. 자장면, 짬뽕, 볶음밥 3가지 메뉴 중 선택하여 조금 이른 저녁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레 자조모임 참여소감을 나눴으며, 대부분 참여자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만족도조사를 마친 뒤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렇게 2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도 즐겁게 마칠 수 있었다.



2018년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총회

박동렬

2018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 가든타워 17층 1707호(강북센터 교육장)에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기총회가 진행되었다. 2017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과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장애인활동보조중계기관 운영위원 선임, 등을 안건으로 심의, 승인했다.



정종남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총회는 신입 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관을 설명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었다.

이후 진행된 총회는 2017년 사업별 결과보고와 결산승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운영위원 선임 등 안건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2018년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할 사업은 크게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 자립주택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인턴제, 강북구지방보조금지원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총 5개 갈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자립생활 실현과 지역사회 환경기반 조성으로 통합적인 복지실현을 목표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실천, 차별적인 구조변화와 지역공동체 구축, 탈시설/탈재가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시스템 지원을 목표로 20개의 단위사업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동료상담과 자립생활기술훈련 및 교육, 김치담그기, 제12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강북구 자치법 제정, 맞춤형 주택개조 및 클리닝사업, 지적/발달장애인인턴쉽과 발달장애인자조모임으로 정리할 수 있다.

김치담그기는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나 횟수는 상하반기 나누어 2회 진행될 예정이며, 제12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는 5월 11일 개강하여 6월 29일까지 매주 금

2018년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요일 총 8강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의 내용은 장애학, 인권, 건강권,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노동권,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클리닝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18년 신규 사업인 주택개조는 총 5가구 지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에 해당되는 주택개조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발달장애인의 취업기회 제공과 자기옹호,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적발달장애인 인턴쉽과 발달장애인자조모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17년 사업보고 및 결산과 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된 후 다음 안건으로 활동보조중계기관 운영위원 위촉권이 진행되었다. 총 8명의 운영위원이 위촉되었다. 활동보조인대표, 이용자대표, 종사자대표, 관계공무원,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활동보조중계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발전적인 활동보조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희망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2018년도를 기대해 본다.

< 자립생활주택 >

외식문화체험 - 미아 롯데백화점

‘도쿄 짬뽕’

김다희



3월 20일 2018년도 첫 외식문화체험 프로그램은 학교생활과 취업성공패키지 양성교육 과정으로 인해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입주자 정00씨와 김00씨가 참여하였다.

입주자 김00씨는 요즘 취업성공패키지 양성교육으로 인해 자립생활주택에서 제일 바쁜 정00씨가 안돼 보였는지 정00씨가 먹고 싶은 메뉴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시어 2018년도 첫 번째 외식문화체험의 메뉴는 ‘중식’으로 결정하였다.

이번 외식문화체험은 김00씨의 휠체어 접근성이 좋은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8층 식당가에 있는 ‘도쿄 짬뽕’으로 장소를 정하였고, 지하의 푸트코트에서 점심식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한 입주자들은 8층의 식당가로 안내하는 나를 보며 의아하다는 눈빛과 들뜨는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였다.

‘도쿄 짬뽕’에 도착한 우리는 허기진 배를 감싸며 메뉴를 고르기 시작하였고, A세트(자장 OR 짬뽕, 탕수육)와 B세트(자장 OR 짬뽕, 장어튀김) 중 입주자들 모두 장어를 먹어야 한다며 크게 웃으며 B세트를 주문하였다



식사 중 정00씨에게 이상형에 대한 질문을 하였더니 부끄러운 듯 크게 웃어 보였고,



식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을 무렵 배가 부르다며 장어를 남긴 정00씨의 장어를 김00씨 활동보조 선생님께서 먹으러 가져가자 정00씨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먹을 거예요” 라며 다시 자기 접시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며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식사를 맛있게 하신 김00씨는 환한 미소를 보이며 다음에도 이렇게 넓은 곳에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또, 김00씨는 주택에서 많은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였고, 많이 돌아다녀봤으니 다음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먹고 싶은 음식으로 메뉴를 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00씨는 이번에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먹었으니 다음에는 김00씨가 원하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고 말하였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 마음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밝은 웃음을 보이는 정00씨의 모습을 보며 김00씨는 웃는 얼굴이 예쁘다며 칭찬을 하였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와 고마운 마음을 가지며 외식문화체험을 마무리하였다.

항상 여러 가지의 메뉴가 있고, 복적거리는 식당에서 외식문화체험을 하다가 이번과 같이 깔끔하고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하니, 입주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다음 외식문화체험도 조용하고 쾌적한 곳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모든 입주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강북센터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분들 모두 파이팅~



613 공감토론회

박지훈



3월 20일 화요일 한신대학교에서 진행되는 공감토론회에 참여하였다. 공감토론회는 613지방선거 강북정책연대에서 주최하며 강북구 미래를 위한 정책을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토론회이다.

공감토론회에서는 강북구에서 거주하는 다양한 시민들과 단체에서 각 분야별 의제를 제안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감토론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환경, 도시재생, 교육, 장애, 문화,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성 평등 등의 각자 의제를 발표하였다. 의제를 발표한 후 주제에 맞게 토론을 하고 공감하며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토론회’이다.

공감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 의제는 사회적경제였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의 필요와 요구,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당사자들의 참여와 운영으로 다양한 자원과 연계를 통해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사회적 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라고 한다. 사회적경제에서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이다. 사회적경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일까? 사회적 가치란 경제, 문화, 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제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확대등 강북구에 발전을 위한 의제 발표가 이어졌다.

사회적경제를 이어 다양한 의제가 발표되었다. 우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터와 함께 웃는 가게 이사장으로 계신 최00님은 장애를 의제로 발표 하였으며 강북구 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들이 주된 내용이었다. 강북구에서 필요한 장애인정책은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증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구비추가시간 확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억압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기 위해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감토론회는 의제를 발표 후 각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형식이다. 우리는 장애를 주제로 토론하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조금 실망스러웠다. 장애라는 주제가 다른 주제와는 다르게 비장애인들이 피부로 닿기에는 멀기 때문에 관심이 저조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공감토론회를 참석하며 강북구가 이런 사회적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없고 관련 예산도 주변 구들과 비교해서 매우 적다. 공감토론회는 이런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강북구의 사회적단체들이 뭉쳐서 각각에 주제를 가지고 강북구에 조례와 복지정책을 요구하며 실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달의 정보

제15회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성공취업·성공채용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제 15회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구인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알선·상담·면접을 통해 직업선택 기회와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채용관과 함께 이력서 사진 촬영, 메이크업, 헤어컷 등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꿈·희망·열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행 사 명	15회 장애인취업박람회
행 사 일 시	오프라인 채용박람회 - 2018.4.18.(수) 오전 10시~오후 4시 온라인 박람회 - 2018.3.26.~4.27. (http://jopable.seoul.go.kr)
장 소	SETEC 1·23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지하철3호선 학여울역)
대 상	기업: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일반기업, 공기업 약 300여개 업체 개인: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 (10,000여 명 참가)
주 최	서울특별시
주 관	서울특별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참가 사업체	300인 이상 대기업, 서울시투자참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 300여개 사업체 예정
부 대 행 사	이력서 사진촬영, 메이크업, 헤어컷, 각종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 예정

출처- <http://job.seoul.go.kr/expo/index.jsp>

청년 구직자에게 정장부터 넥타아구두벨트까지 3박 4일간 연 10회 무료 대여

- 취업날개서비스는 고교졸업예정자~만 34세 이하 주소지가 서울인 청년 구직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년에 10회까지 자신에게 딱 맞는 정장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 대어를 원하는 청년은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에서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장 대여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 대여기간은 3박 4일로 첫 대여시만 치수 측정 등을 위해 방문하면 되고, 이후에는 온라인 신청 후 택배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 대여절차는 키·가슴둘레·다리길이 등의 신체지수 측정 후 대여전문가가 취업목적과 체형에 어울리는 정장을 골라주며, 정장을 선택하면 바지 길이 등을 수선 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 정장을 대여해주는 업체들은 다양한 정장과 넥타이·벨트·구두 등도 보유하고 있어 면접에 필요한 모든 아이템을 한곳에서 빌릴 수 있다.

문의사항-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 담당자 김새별 2133-5439

출처- <http://jobable.seoul.go.kr/jobable/>

2018년 포커싱(Focusing) 체험심리치료 집단상담

포커싱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문제와 관련된 몸의 느낌인 펠트센스(felt sense)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을 하여 이것과 접촉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자극을 통해 '자기됨'을 회복할 수 있고, 집단체험을 통해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 ◆ 모집인원: 10명
- ◆ 교육대상: 관심 있는 장애인 누구나 수강 가능
- ◆ 접수기간: 2018년 4월 11일까지
- ◆ 교육시간: 2018년 4월 12일 ~ 8월 9일 13:00~18:00 총 13회기 65시간 이수
- ◆ 교육장소: 이룸센터 2층 교육실
- ◆ 신청방법: 메일. gncil.naver.com, 팩스. 070-4196-3766, 전화. 02-459-3766
- ◆ 문의사항: 02-459-3766 (이성미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출처-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0597599145&hc_ref=ARTkuq2xnHLIuk9QwEiIlyqG_VizbjwIEBfW_g_tx5mijZ4xbscF0kF6osMtLJUgDq-s&fref=nf

여행

신영복

여행은 떠남과 만남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성(城)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며,

만난다는 것은 새로운 대상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은 떠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행을 돌아옴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며,

우리의 아픈 상처로 돌아오는 것일 뿐입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 납 업 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 납 목 적	회원회비	
대 표 자	정종남	사 업 자 등 록 번 호	210-82-68864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 청 정 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일 재출금
금 용 거 래 정 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 인 정 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의 이용목적 : 효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div>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효성에프엘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재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등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div>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효성에프엘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등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효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div>				

18년 03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소연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이하용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주영경	최윤숙	최전균	허효숙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서울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자립생활기술훈련 체험 김치 담그기 '나누리' 참여자 모집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에게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사랑과 정성의 손맛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사업명	체험 김치 담그기 '나누리'
일시	2018년 4월 27일(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강북센터 교육실 (수유역 가든타워 1707호)
대상	서울지역 장애인 90명
배분내용	1가구 당 5kg (체험자 위주 배포)
신청서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신규참여자)
접수방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또는 사무실(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기타문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08-7776 ✉ kbcil@daum.net

※ 휴게시간 12:00 ~ 13:00

※ 위 일정은 센터 상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